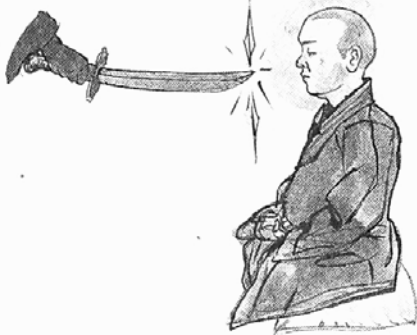


“불법 큰지혜 오늘의 회화로”



심화·이기선

심호흡하듯 늘 찬찬하자

물을 마실 때도 찬찬히 쉬어 가면서 마시라고 한다. 급히 마시면 체하기 때문이다. 맹물에 채하면 약이 없다고 한다. 신중히 일을 하는 것이 신중이다. 급히 서둘러 할 땐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가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찬찬하게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일을 할 때 급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한다. 조급증이 발동한다. 아니 성취욕이 강하게 발동하기 때문이다. 조급증은 좋은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시절이 때가 되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 수수를 빨리 익히기 위하여 수수공이를 뽑아 올리면 쪽줄이로 말라죽게 된다.

한가할 뿐 내 스승 부처님도 연등불을 밝히고는 일찍이 여러 겁에 인욕하는 선인 되었다네.
허둥대거나 버둥림이 없는 삼매의 노래이다. 노래로만 불러진 것이 아니라 실상의 여여(如如)함을 드러낸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일을 할 때 가

수한 종교수행인이 진리롭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일상과 종교를 이분법(二分法)으로 별립시키는 것은, 낮은 생활이고 받은 침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밤낮이 하나이다. 밤낮이 일상이고 종교인 것이다. 그러므로 증도가에서 언어생활(語) 삼매수행(默) 활동과 수행(動靜)이 언제나 편안하다고 하지 않았는가.
내 눈앞에 칼을 들이 대더라도 입에다 독약을 먹더라도 태평과 한가를 소유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일상이 되어야 하고 수행이 되어야 한다. 일상에는 방종·방탕을 일삼고 간혹 수행할 때 마음을 찾았다고 부상을 떨지만 그것은 모두가 허망한 일이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일상을 삼매하게 하여 부분별의 일심으로 생활하여야 한다. 왜 이러한 일이 되지 않는가. 조급함이 성취욕이 불붙고 있기 때문이다.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16
인욕

조급·성취욕·번뇌 참는 수행 부처님도 91겁 인욕한 선인

선혜선인(善惠仙人)으로 수행하셨던 부처님도 번뇌를 벗어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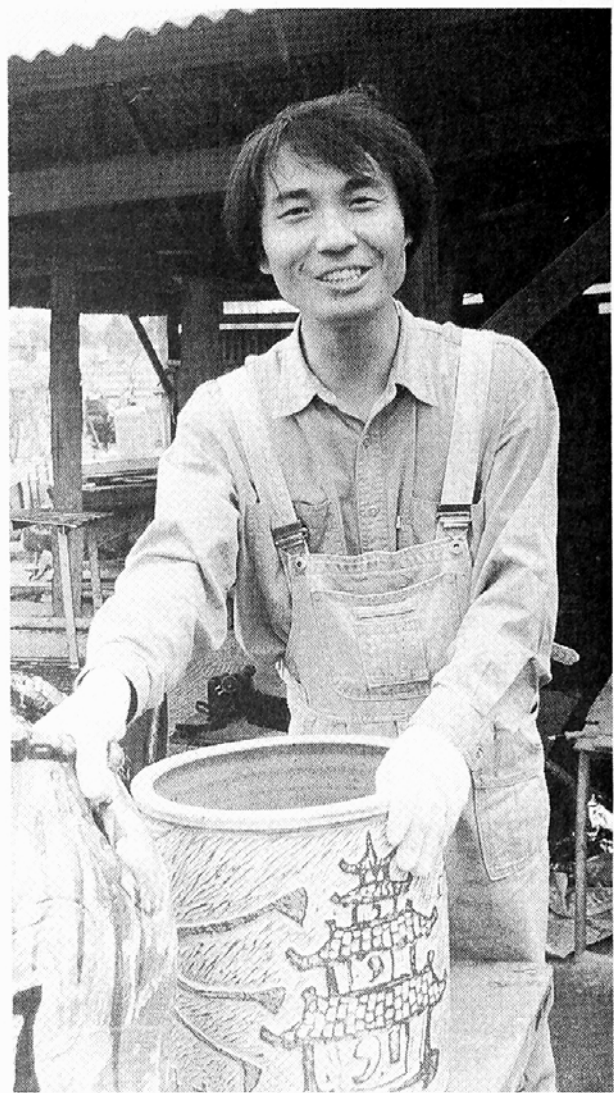
방의 공덕과 물의 생명과 태양의 열기가 고르게 화연(和暖)되어야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조급한 마음은 금물이다. 인제나 세월을 기다리는 마음을 두어야 한다. 세월이 약이다 라고 한 말은 비감적인 사건을 해결하는데 쓰이는 말이 아니다. 모든 일들은 필요할 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의미한다.
급조하게 되는 일은 없다. 수이 뜨거워진 냄비는 바로 소게 된다. 질그릇이 한번 데워지면 어느 정도 열을 보존하고 있다. 온풍도 마찬가지로. 한번 군불을 지펴놓고 보면 아늑하고 포근한 더운 기운이 온 방안을 휘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습기가 기다림의 절호이요, 바라보는 믿음이다. 그러므로 한 일을 성공시키려고 마음먹었다면 그 일을 잊지 말고 항상 열력(念力)을 쏟아부으면서 찬찬히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연각(演說)스님의 증도가(證道歌)에 이런 노래가 있다. 「같이도 꿰고, 앉어도 선이라. 어묵동정(語默動靜)어 언제나 편안하네. 강함을 들이뺐을 항상 태평하고 독약을 먹던들 다란

라앉음이 없다. 들떠 있다. 망상과 도거(毒藥)로 되어질 일에 환상의 그림을 그린다. 저 혼자 그려놓고 입을 이죽거린다. 망상의 만족함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림이 그렇게 쉽게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이내 실망하고 불안하게 된다. 이러한 일들을 되풀이하는 사람이 많다.
환각증세로 사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제 걸음이 울리지 못하고 비틀거린다. 속히 환상의 만족에서 깨어나 실재의 일로 돌아와서 자신을 추스려야 한다.
걸어다녀도 향선의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 향선은 향타는 자신을 추스리는 수행이므로 앉아도 삼매의 시간에 앉아야 하며 삼매는 자신의 목적을 해하게 관조(觀照)하는 현미경이다. 일상을 진리롭게 하는 것이 상식이다. 북

을기 전에 일상의 생활에서 세월하였으리라. 그러나 선혜선인이 연등불을 밝히고는 91겁동안 인욕하는 선인이 되었다는 노래는 함축적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우리 인간들도 삶의 경험을 깊게하면 자신의 걸음을 헤아리게 된다. 찬물도 찬찬히 마시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 경험이 없으면 얼피드는 발짓이 앞선다.
인생은 급하지 않다. 하늘이 무너지는 법도 땅이 깨지는 일도 없다. 기우를 가지 않아야 한다. 언제나 심호흡을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스며 있는 찬다움을 찾아내야 하고, 나서더라도 급히 서두는 발광(發狂)을 거두어야 한다. 부처님이 인욕선인으로 91겁동안 일상과 수행을 영히하게 삼매한 것처럼 기다려야 한다.

가마솥으로 삼를 들어간 임효씨(林孝, 41)가 드디어 큰 도자기 하나를 들고 나온다. 아직도 따끈따끈한 연등 불 도자기의 한 면에는 촉촉한 듯한 삼총담, 그 위로 새겨 비상을 하고 있다. 또 한편에는 면백하고 있는 선사가 깊은 삼매에 빠져 있고,
도자기를 이리저리 살펴보는 임효씨의 얼굴에 아기를 막 낳고 들어다 보는 산모의 얼굴이나 피어넘직한 만족한 웃음이 번진다.
“어떤 색깔, 어떤 무늬로 나타낼지 궁극하기 이틀에 없어요. 이렇게 개별 때의 삼장을 아기가 태어날 때의 기쁨에 비할까요?”
지난 5개월, 하루 13~14시간씩 도자기와 도관 작업에 몰두했다. 손가락 지문이 다 벗겨져서 손가락을 기어올린 도자기들은 가마에 넣어진 채 이틀동안 뜨거운 불로 재탄됐다.
평범한 흙이 마음과 손길과 그리고

교와 자연.
“흙이란 것이 묘합니다. 만지면 만질수록 편안하고 '본질적'이란 느낌이 옵니다. 흙은 진실합니다. 누르거나 나오고 파면 들어가고... 손톱자극이라도 찍히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흙입니다.”
어떤 예술이든지 그것에 임하는 작가의 마음이나 태도가 그대로 작품에 드러나는 법이지만 흙을 밟을 때 그는 한층 인간으로서 예술인으로서 진심해져야겠다고 다짐한다.
그는 지난해 말 제작한 도부조 90여점과 이번에 구워낸 도부조·도자기 90여점을 모아, 3월25일~4월5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서울관화 미술제에 참여하며 9월에는 7번째 개인전을 연다.
임씨가 그림그리며 처음 주제로 삼은 것은 민화·전설·신화 등이다. 그는 우리가 조금만 마음의 눈을 열고



신문박의 **기**

한국화가 **임 효 씨**

도부조 판화개척... '반야심' 시리즈 작업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걸림없는 작품을"

불의 단련을 거쳐 새로운 생명으로 완벽하게 태어난 것이다.
오랫동안 그림을 해온 임효씨에게 있어 흙을 밟는 일은 또 하나의 경이의 세계와의 만남이다. 더구나 그는 작년부터 도부조(陶浮彫)란 새로운 판화 영역을 개척, 미술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백토를 다져 도관을 만들어 부조작업을 한 뒤 철사·진사로 채색하고 초벌한 다음 유약을 바르고 건조시킨다. 이 도부조판위에 전통 단풍이를 풀어 두루마기 올려놓고 프레스로 가압해 눌러 찍으면 도부조 판화가 완성된다. 동판화 등에 비해 한지 원료와 자연에서 채취한 물감을 사용해 찍은 도부조 판화는 포근한 질감이 우러나 우리 민족의 정서와 잘 융화되는 느낌을 갖고 있다는 평이다.
그가 만든 도부조의 대표작은 「부위자연-반야심」,
불자들이 아홉 지역으로, 어느 법회나 들상 독송하는 반야심경을 이미지한 작품이다.
그는 이번에 도부조뿐 아니라 도자기도 40여점 구웠다. 역시 소재는 불

본면 고대로부터 수천년을 이어 내려온, 살아 숨쉬는 신화적 요소를 주위에서 알아듣지 못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 회화로 옮겨왔다. 인간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문명의 소산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화폭에 옮기기를 추구해 온것.
그가 도부조로 시도한 '반야심' 시리즈도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고 그리기' 작업의 일환이다.
반야심경을 6축 도부조로 옮기면서 내내 마음의 눈으로 경전의 심오한 뜻을 새기고자 했다. 무엇을 그리겠다고 욕심을 부린 작품은 나중에 별로 매력적 없는데 자연스러움 속에 걸림이 표현한 작품은 작가 본인에게도 와 닿고, 보는 대중들도 공감할 만큼 때가 됐다. 그는 '반야심' 시리즈에서도 제작해 내 보았다.
“차를 타고 갈때나 집에서나 작업할때나 법화경·화엄경 등 경전테이프를 들고 있습니다”
쉽게 풀이해 놓은 경전테이프를 수없이 듣고 경전도 읽고 하며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늘의 현대인이 이

해하기 쉬운 회화언어로 표현하고자 한다.
사적인에 갇혀있는, 2천5백년전의 가르침이 아니라 현실에서 팔팔 살아 숨쉬는 '큰 지혜'로서 현대인들과 만나게 하는 교양역량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가가 그에게는 화두이다.
예술이란 '기인' 또는 '괴파스런 사랑'이란 선입견을 가지고 그를 처음 만난 사람은 의외감을 느낄 것이다. 그는 늘 웃고있는 밝은 얼굴이다. 행동도 아이처럼 천진하고 걸림이 없다.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그가 예술의 길로 들어설기 위해 독학을 신산삼의 길을 얼마나 힘겹게 걸어왔는지를 물어보지 않고 있다.
그에게 원하는 예술의 길에 들어서게 원력을 심어준 사람이 바로 스님이었다.
미술가가 되고 싶은 꿈이 부모의 반대에 부딪혀 고민하고 있을 때 스님들은 “뜻을 크게 세워라. 뜻을 세우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일려세움'과 믿음이 중요함을 가르쳐 주었다. 때때로 혼자 힘으

로 돈을 벌어가며 힘겹게 홍익대 동양화과를 졸업, 화가의 길을 걸고 있는 지금까지 스님들이 심어준 불심이 든든한 바탕이 되어주었다.
10년전 인생관은 물론 작품세계까지 크게 변화를 맞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된다.
스케치여행으로 홍도에 가던중 큰 폭풍을 만났다. 조그만 통통배는 큰 파도에 밀려 금방 넘어질 듯한 위급한 지경에 이른다.
태산처럼 밀려오는 파도에 무섭게 휩쓸리는 일명편주안에서 토막질을 하는 중에도 머릿속이 환히 돌리며 다음과 같은 생각이 떠오른다.
“실경상수도 아름답지만 꾸미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연을 자연 자체보다 더 잘 그릴 수는 없는 일. 내 마음자체가 자유롭게 걸림없이 그대로 표현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
치장해 붙들 것이 진실로 강동이 내 메시지를 줄 수는 없는 일. 내 마음이 진실로 느끼는대로 그려보자”
마음을 비움으로써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그 때 그 절대절명의 사건의 순간에 깨우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천=이경숙 기자)

사랑 넘치는 환한 세상 만들기

95년 봄학기 자원봉사 시민대학 개설

자원봉사자모집 안내 자원봉사자 그는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다함없는 부처님의 자비를 품고.....
.....형합없는 세상의 어진빛되어.....
.....이 세상 끝까지 빛이되리라.....

여기 불우한 이웃들의 고난의 삶을 더불어 나누고자 서원하는 어진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운것 없지만 수채구녕에 뜨거움을 식혔다 버릴줄 아는 사람 가진것 없지만 동반쪽이라도 나누어 먹을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한얼속에 한울안에 한알인 도리 깨우쳐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 불교자원봉사연합회에서는 자비와 봉사의 정신으로 병든이, 길 잃은이, 외롭고 가난한 이들의 등불이 되고 어진빛이 되어주실 귀한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뜻이 있으신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기별 주시면 어진빛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불교 자원봉사연합회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96번지 21호 3층
TEL : 723-6258~9 FAX : 723-6257

전문봉사시대를 준비하는 자원봉사자 교육

만민이 귀일하는 곳으로 함께 떠나는	작은 자비 나누기	민족 차문화 활성화를 위한
불교기본교육	자원봉사자 및 지도자 코스	차문화교육
부처님 일대기, 불교의 정의, 삼귀의, 사후생전, 십대계사, 삼보신심, 12처, 오온설, 연기의 진리, 업설 윤회설, 사성제, 팔만해탈살보살보살상, 주불전, 사찰내건물, 법구, 사찰내법, 불자수도행, 불자의 실천덕목, 불교상식	수지치료의 기초원리와 체계, 태극양봉치료법, 반지치료법, 기경8대교회치료법, 신비의 영점치료법, 임도독명종(교육특성) 등의의 초보자라도 이해할수 있는 치료법을 터득하면 허·실·보·사의 진찰과 치료를 쉽게 익히 가족과 이웃을 도움 수 있습니다.	초의 행동법(행타실제), 차생활의 시작, 성분과 효능, 차의 일반적 정의, 명칭, 차나무의 종류와 분포, 차의 기원과 전래, 차의 정신, 차의 감별과 보존법, 물의 선택, 불의 조절, 문후차의 분류와 제다법, 차의 도구와 사용법
3.20~6.21(3개월) 매주 월요일 오후3시~5시	모집 45세 미만의 날 3.20~6.21(3개월) 매주 월, 수, 금 오전10~12시	한·중·일 차문화 비교분동 3.24~6.21(3개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3시
홍익인간이념의 사회화를 위한 노인지도자 코스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 그 녹색평화를 실천하는	살과 열반의 불이법문 불교상례봉사를 위한
민족사상교육	환경교육	원앙생교육
개천절의 문헌사적 고증, 친부경, 삼일신고, 팔전계경 사상개관, 홍익인간론, 민족사상의 역사적 배경, 삼성기 상·하 단군세기, 친문학으로 증명된 고조선사, 북한 단군공의 실상	종교, 풍토와 환경문제 (수질오염)에 미치는 환경 (고통-대기오염문제와 대기오염 (쓰레기)문제와 그결과 쓰레기문제 (식) 풍합상의 위기 식물공해 (물) 열대열대명령기종국화하는 열의 (지구환경)반지구 산림 파괴와 민간운동 (생각)민족의 선형성태에 보존현황	동원왕성의례 전만 가정의례준칙에 의한 상세식 일반상례의 죽문서식, 영습의, 성복의, 영결의, 화장의, 매장, 발인작법, 한국인의 계례의식, 사후의식, 영부수 영습설계, 수시실습, 원앙생 특강실습, 장엄영법, ※연화열사배움 1단계 코스
모집 40대이후의 중년봉사 노인들 3.24~6.21(3개월) 매주 금요일 오후7시~9시	3.23~6.21(3개월) 매주 목요일 오후 1시~3시	3.25~6.21(3개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5시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수록 자원봉사경험은 업무 경력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 봉사 고유번호를 받은 후 취득된 봉사실적에 따라 봉사기장 및 예우를 받습니다.
- 본회 주관 홍익인간사업에 우선적 혜택을 받습니다.
- 명상으로까지 이어지는 재교육을 통해 인생의 최고가치를 실현하게 됩니다.

□ 교육일시 : 1995. 3. 20~6.21까지
□ 교육장소 :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서울종로사무실
□ 접수기간 : 1995. 2.20~3.20까지 (각교육선착순 60명)
□ 접수장소 :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서울종로사무실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96-21 최안과 3층-종로경찰서 부근)
□ 교육비 : 무료 □ 후원회원 배가운동 동참
□ 접수문의 : (TEL) 723-6258, 723-6259, (FAX) 723-6257
※ 교육후 상담을 통하여 전원 자원봉사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 자랑안내
<일방버스> 2. 8. 20. 84. 205. 331. 543(종로경찰서 하차)
<좌석버스> 8. 84. 205-1. 543 (종로경찰서 하차)
<지하철> 3호선 인곡역 하차 (종로경찰서 출구)

불교 자원봉사연합회